일자리 매칭서 FTA 활용까지…중소기업 상생 길라잡이

출범 13년…중소기업 교육 컨설팅·판로 개척·자금 지원 활동
현장기동단 가동·성장지원 프로그램 진행·전남청년센터 운영
전남도FTA 활용지원센터 운영…874개사 애로 745건 해결

지난 2007년 9월 재단법인을 설립한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09년 5월 지원센터 개청식을 가졌다. 올해로 출범 13년째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예비취업자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진흥원은 2011년 9월부터 전남도와 함께 전남FTA(자유무역협정)활용지원센터(이하 전남FTA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자유무역을 더 잘 활용하고 자유무역협정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중이다.

전남FTA센터는 지난 2021년도 전국 18개 지역 FTA센터 가운데 2위에 오르는 등 개소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FTA활용 유공자 포상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도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FTA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전남도,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지역 관계 기관이 협력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남도 실정에 맞춘 FTA 대응 서비스를 지역 업체에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관계기관 간 협력과 사업 운용을 위한 연결고리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업체가 FTA 활용 애로 해소 및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 FTA센터 상주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FTA 현장방문 컨설팅'에는 도내 874개사가 참여해 745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이에 더해 FTA 활용에 필요한 수출 협력기업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영세기업 원산지 관리 등 맞춤형 사업에는 237개사가 569건의 지원을 받았다. 도내 전문 무역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원산지관리사·원산지실무사 자격증 취득 교육, FTA 교육 등을 82차례 실시했으며, 도민 3,19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전남FTA센터가 컨설팅과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도내 기업이 무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를 직접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도내 기업이 전남도의 특산품인 조미김을 수출한 뒤 기획재정부의 품목 분류 변경으로 인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관세청에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요청, 관세 환급 고시 개정을 통해 약 6억 원의 세금을 되돌려받도록 해줬다. 코로나 19 여파로 손소독제 용기 부품인 건스프레이 수급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한 수출업체는 FTA센터의 노력으로 건스프레이 6만개를 확보해 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코트라와 협업해 전남의 전기오토바이 생산업체인 모헤닉모터스가 인도업체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도움을 줬다.

도내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증명서나 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남FTA센터에서는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FTA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 수출 및 FTA 활용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OK FTA 컨설팅'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박정훈 전남FTA센터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FTA는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와 같다"며 "FTA 활용 제고를 통해 도내 수출 기업의 현지 시장 가격경쟁력 강화 및 진출 시장 확대를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역 및 FTA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FTA센터 홈페이지(fta.jepa.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매칭, 교육 컨설팅,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을 맡고 있는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산하에는 전남FTA(자유무역협정)활용지원센터가 있다. 사진은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사.

지난 2021년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방문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FTA센터 직원들.

"기업과 함께 지역경제 성장 마중물 역할 충실하겠다"

우천식 전남중소기업진흥원장
상생·협업·소통으로 동고동락
기업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지원

우천식 전남중소기업진흥원장은 지역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코로나 19 이후 경영난 지속 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JBA)을 소개한다면.

▲진흥원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지역 중소기업인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2009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일자리창출, 자금지원, 판로·수출확대 및 경영컨설팅지원에 힘써왔다. 기업이 가장 찾고 싶은 파트너로 성공스토리를 만드는 전문지원기관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융합과 동반성장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철학이 있다면.

▲기관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상생', '협업', '소통'이다. 기업의 위가 아니라 그 옆에서 동고동락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기업을 살필 수 있는, 기업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지원기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경제 여건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기관 경영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업이 주는 시너지 작용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상생과 소통의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 도태되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면.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였다.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위해 몸부림을 했던 것 같다. 직원들 의견 청취를 통해 전진과 활력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전남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또 비대면 회의 및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행사를 정례화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기업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 조만간 기관명칭이 변경된다고 들었다.

▲그렇다. 우리 진흥원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도정 핵심사업인 일자리창출과 구인·구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지난 3월에는 그동안 임시 운영하던 전남도 일자리플랫폼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일자리가 만나는 공간을 마련해 동부지역(순천)에 정식 개소했다. 일자리 지원 분야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 올해 계획하는 역점 추진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 자금지원,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강화 및 조선업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등 3가지다. 진흥원은 지난 2021년 1,292개사 3,8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한 저리대출을 지원했다. 또 188개 기업에 500억 원 대출금을 연장 및 유예를 실시했다. 올해도 매출 급감(10%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의 만기연장(1년) 또는 상환유예(6개월)를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에 3억 원에 대한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운영해 지난 2021년 94개 제품 입점, 214만불 수출 실적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제품 150개, 수출 실적 500만불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중년 세대에 맞춤형 일자리 상담 서비스 구축과 특화 교육훈련과정 운영 등 경제활동 복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